

전주동물원 시민 편의 'UP'

시, 동물원 주차 공간 부족문제 해소 위해 인근 부지 매입 주차장 120면 추가 조성

전주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되면서 관람객이 늘어 전주시는 주차공간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주차면 부족으로 매년 봄·가을 성수기 때마다 반복되는 전주동물원 관람객들의 주차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원 인근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 120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현재 빗물의 땅 속 침투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덕진공원, 유역 IID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올해 말 완공되면 주차 가능면수가 기존 708면에서 631면으로 줄어들어 관람객들의 주차 불편이 가중될 것

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줄어드는 주차면적보다 많은 120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현재 사업부지(사유지 2필지, 2,539㎡)에 대해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안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오는 5월 초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말부터 실시계획 및 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동물들에게는 충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육사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고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시베리아 호랑이와 원숭이 사 신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내년 부터는 이전보다 개선된 동물사에서 활동하는 호랑이와 원숭이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동물원을 사람과 동물, 생태가 공존하는 동물들이 행복한 동물원으로 만들고, 생태동물원을 방문하는 시민과 여행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인프라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사회혁신 위한 시민 아이디어 '풍성'

전주시, '장애인 복지정보 시스템 디자인' 등 공모 10건 선정

장애인이 시각과 청각 등 다양한 복지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복지정보 시스템 디자인이 개발된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센터장 조순희)는 지난 2월 20일부터 약 1개월 여 동안 진행한 '2019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본선심사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나이는 생활문제 해결사'를 주제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전주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생활환경문제(환경·교통 등) △육아·교육 문제 △소수자 문제(이동권·인권 등) 등 총 5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자체 서류 심사와 본선심사를 통해 수상팀이 결정됐다.

본선심사 결과, 대상은 소수자문제

분야의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제안한 김수현씨의 '장애인이 복지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참여적 디자인'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어린이가 보는 학교길 시각영상 제작 △자전거 도로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의 2건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쉐어하우스를 통한 독거노인의 삶 증진 △셀프 스튜디오 대관을 통한 전주시 소상공인 촬영문제 해결 △반찬(飯糰)이 아닌 반찬(牛糞)을 통한 환경오염 해결 등 3건이 차지했다.

또한, △환경부담금의 역발상! 남김없이 먹어라 △플라스틱 없는 로컬마켓 △지혜는 더하고 고민은 나누고 △생활 속 환경문제 학원차량 간의 O2O 서비스 방안 등 4건은 장려상을 차지했다. /송효철 기자

저작권 보호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컨설팅 지원 희망기업 모집

전북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 이하 진흥원)은 지역 콘텐츠기업 저작권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5월 10일까지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저작권 사업화 컨설팅은 지역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등이 보유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진단과 사업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약 4개월간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콘텐츠 저작물(권)에 대한 심층 분석 및 발전방안 △콘텐츠 사업화 방안 △저작권 관련 권리보호 및 법적분쟁 예방방안 등 저작권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진흥원은 콘텐츠 시제품 제작지원, 저작권 인식제고 및 확산 교육 등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ica.or.kr)에서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방문접수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063-281-4136)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빈집 실태조사 착수

전주시가 장기간 방치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에 대한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거지 재생에 나서기로 했다.

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는 올 연말까지 도시 전역의 빈집을 유형별로 정리한 후 안전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 빈집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와 LX는 오는 7월까지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활용한 주거지재생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최근 1년 간 에너지 사용이 없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추출한 뒤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등 급산정조사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이후, 주택의 관리현황과 건물 안전상태 등을 조사한 뒤 빈집 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각 등급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총 2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를 진행 중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실태 조사로 장기간 방치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기틀이 마련 될 것"이라며 "이번 용역이 전주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故 지정환 신부 장례미사

故 지정환 신부의 장례미사가 16일 전주 중앙성당에서 실시된 가운데 신부와 수녀, 신자들이 고별식을 하며 지정환 신부를 보내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 확실히 줄인다

전주시, 이달부터 10월까지 저감 중점사업 추진기간 선정

상반기 노후경유차 582대 조기 폐차 지원 등 펼쳐기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으로 손꼽히는 노후경유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비교적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노후경유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자료에서 전주시 미세먼지 발생 주요원인이 자동차로 인한 도로 이동오염원(21.4%)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자동차 증가로 인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 2차적으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급증하면서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차 전환, 전기차 구매 지원 등 도로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한 사업에 속도감을 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올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582대의 노후경유차를 줄인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예산확보 절차를 거쳐 4배 많은 총 235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는 초미세먼지(PM2.5)를 같은 차종의 휘발유차에 비해 130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분량인 160대 중 현재까지 86대를 조기 확정해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74대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전체 차량의 97% 정도가 경유차량인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LPG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

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배정된 80대 중 30대를 지원할 상태로 나머지 50대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천연가스자동차(시내버스 30대) △전기이륜차(80대) △저감장치 부착(노후경유차 등 93대) △간접기계 엔진 교체(20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능한 올 상반기 중 많은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시민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주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도로이동오염원을 조속히 제거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화장품 흠친 30대 검거

매장에 진열된 립스틱을 흠친 30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안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9시 6분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한 화장품 매장에 진열된 립스틱을 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 영화의 거리 '새단장' 진행 중

올해로 20회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에 대비해 고사동 영화의 거리가 정비된다.

총 53개국, 274편의 영화가 상영될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원과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 손님맞이를 위해 영화제가 열리는 공간인 영화의 거리 곳곳을 정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전주국제영화제의 주 공간으로 매년 유류관객 8만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영화의 거리 곳곳은 전주국제영화제의 고유색인 '전주 레드'로 칠해지고 개·폐막식 등 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인 전주 돌도 설치된다. /송효철 기자

전북경찰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간담회

전북경찰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장은 경찰·자치단체·교육청·성폭력상담소·아동보호전문기관·여성긴급전화 1366·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경찰의 중점적안정책과 유관기관간 협업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도내 성범죄 발생 자료를 토대로 아동·학생·장애인·노인 등 대상별 성범죄 예방 대책과 유기적인 협업방안에 대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전북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불

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합동점검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교육청(학교)·여성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지원을 부탁했다.

강인철 전북청장은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로 국민의 체감안전을 더욱 높이는 한편, 경찰과 유관기관·단체 등이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확립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간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협업체계를 내실화하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하는 등 제반 활동에 여러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화물차 법규 위반 집중 단속 전개

전북경찰청 9지구대

전북경찰청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16일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에 따르면 전날부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유발 위험이 큰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9지구대는 지난 3월부터 4월 1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암행순찰, 노선순찰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팀과 합동으로 화물차량의 과적 및 적재불량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정비불량 차량에 대한 '정비명령 및 수시검사'로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아울러, 9지구대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을 할 예정이며 인근 지구대와 권역별 합동 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강석훈 기자

공동체 치안 활성화 간담회

전북경찰청이 도 내 치안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자율방범대와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임원 및 각 지역(시·군) 회장 등 2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통해 치안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자율방범대 유공자 수석식과 치안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15개 경찰서 자율방범대의 활동모습이 담긴 동영상상을 시상했다. /강석훈 기자

'뺑소니' 전 상근예비역 구속

승용차로 신문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20대 전 상근예비역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모(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자정쯤 전주시 효자동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로 신문 배달을 하던 B모(56)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 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서서히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상근 예비역이었던 A씨를 군 헌병대에 인계했으나 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전역한 뒤, 재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군산 아파트서 화재 발생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연기를 들이 마신 일부 주민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경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20명이 대피하고 7명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는 소방당국이 살수차 등 장비 23대와 인력 70여 명을 동원해 20여분 만에 진압됐다. /강석훈 기자

임실 돼지농장서 화재 발생

16일 오전 8시 20분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한 축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돼지 460마리가 죽고 축사 건물 757㎡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신고와 함께 출동한 소방당국은 살수차 등 장비 22대와 인력 57명을 투입해 2시간만에 불을 껐다. /강석훈 기자